

# 王昭君 出嫁 和親의 主要 原因

俞泰揆\*

## <目 次>

1. 머리말
2. 正史類의 昭君和親
3. 民間故事類의 昭君和親
4. 맺는말

## 1. 머리말

公主 和親제도는 春秋戰國 시대부터 비롯되었는데, 제후국간에 和親을 통해 상호간 유대를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책이다.<sup>1)</sup> 이후 이 제도는 여러 왕조에 걸쳐 부단히 계승되어 많은 여인들이 정치적인 희생물이 되었다.

한 고조 유방이 한 제국을 건국한 이래 匈奴의 빈번한 침략과 약탈에 시달리던 漢 정권은 부득불 和親이라는 방법을 통해 나라의 안정과 평온을 강구하기에 이른

\* 충주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1) 中華網新聞〈眞實王昭君〉(5) 2006.8.7 “公主和親作爲一種政治手段由來已久，在春秋戰國時代，中原各个諸侯國之間就常用和親來相互結好或制衡。

林麗珠〈論昭君藝術形象的產生及其歷久不衰的奧秘〉(廈門大學學報) 1982-2 “在中國歷代 王朝中，漢族與其他民族之間爲了謀求邊界安寧，民族和睦 或爲了達到某種目的採取妥協和讓步，往往實行和親政策，所以派遣公主出塞和親

다. 전략적인 和親제도는 개인의 불행을 담보로 하지만 漢匈 정권 상호간의 이익에 부합하는 차선책인 외교정책이다. 匈奴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漢의 입장에서는 匈奴의 변경 침범과 약탈을 예방할 수 있다.

漢代에 和親정책의 추진으로 모두 열 세 명의 公主가 출가하였는데, 이 중에는 宗室의 여자를 公主대신 출가시킨 경우도 있다.<sup>2)</sup> 이에 비해 유독 王昭君(이하 昭君으로 지칭)은 순수한 민간인 신분으로 和親의 임무를 수행한 최초의 경우에 속한다.

公主 신분과 민간의 양민 신분으로 각기 和親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지만 세상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상반된 입장이다. 민간의 입장에서 皇室公主의 和親은 정권유지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보지만, 昭君의 和親은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의 딸이 희생되었다는 연민과 동정의 시각이다. 전자의 경우 물론 연민의 시각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자신들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후자의 경우를 동일한 입장, 특히 피지배계층의 정서로 본다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전자보다 더욱 진한 감정과 혈연적인 유대를 강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唐代의 풍유시인 白居易는 王昭君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군왕께서 만일 제 안색을 묻거든, 궁궐에 있을 때만 못하다 말하지 마세요!”<sup>3)</sup> 이 구절은 匈奴에게 출가한 여인의 기구함과 서러움을 묘사하고 있다. 황량하고 거처를 유목 생활로 衰落하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皇帝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말아 달라는 애절한 표현은 바로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正史인 《漢書》에서 최초로 昭君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고 난 이후, 民間故事類의 집대성이랄 할 수 있는 《西京雜記》와 《世說新語》, 그리고 《琴操》 등에 소개되는 昭君 고사는 수식과 과장을 첨가하면서 여러 계층을 초월하여 회자되는 고사가 되었다. 그러나 史書와 民間故事의 昭君의 出嫁 和親에 대한 시각은 상이하

2) 梁容若〈關於王昭君之歷史和文學〉大陸雜紙 第一卷第九期 “如下嫁烏孫之細君、解擾、皆 宗室女”

3) 白居易《王昭君》其二 “君王若問妾顏色，莫道不如宮里時”

다. 전자는 匈奴의 單于가 요구하여 下賜했다는 시각을 부각시키고, 후자는 昭君이 주동적으로 聽行했다는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史書와 民間故事에 드러난 昭君의 出嫁 과정을 대조하여 和親의 主要 原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正史類의 昭君和親

昭君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漢代의 班固(32~92)가 지은 《漢書》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昭君의 생애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편찬된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昭君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입궁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입궁 당시 昭君의 나이는 몇 세인지, 昭君이 궁궐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한 元帝 建昭 元年(B.C 38)에 전국의 미녀들을 모집하여 後宮으로 보충토록 영을 내렸는데 昭君도 이 시기에 입궁하게 되었으며 당시 나이는 대략 16세 정도로 추정된다.<sup>4)</sup>

《漢書·元帝紀》와 《漢書·匈奴傳》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하고 있다:

- I) 竟寧 元年(B.C 33) 춘정월에 匈奴의 呼韓邪單于가 입조하였다. 詔書에 이르  
 기를: “匈奴의 郅支單于가 예의를 배반하고 그 사실을 감추었다. 呼韓邪單于  
 는 은덕을 잊지 않고 예의를 흠모하여 다시 군신의 예를 갖추었으며 변경을  
 보호하여 무궁하게 보전하기를 원하여 변경에서 오랫동안 전란이 없도록 하  
 였다. 때문에 竟寧으로 開元하고, 單于에게 궁궐의 後宮王嬙을 하사하니 왕비  
 로 삼으시오.<sup>5)</sup>
- II) 竟寧 元年에 單于가 入朝하자 선물을 처음과 같이하고, 의복과 비단, 솜을  
 추가하였는데 黃龍 시기보다 배로 하였다.<sup>6)</sup> 呼韓邪單于가 스스로 한나라 사

4) 《眞實王昭君》(2) “漢元帝建昭元年，下詔征集天下美女補充后宮，王昭君當年二八”

5) 《漢書·元帝紀》“竟寧元年春正月，匈奴呼韓邪單于來朝。詔曰：「匈奴郅支單于背叛禮  
 義，既伏  
 其事，呼韓邪單于不忘恩德，鄉慕禮義，復修朝賀之禮，願保塞傳之無窮，邊垂長無兵革  
 之事。其改元  
 爲竟寧，賜單于待詔掖庭王嬙爲關氏」”

6) 黃龍은 元帝 즉위 초년, 즉 B.C 49년인데 중간에 다시 初元으로 개원하였음

람에게 장가들기를 위하여 자청했으므로, 元帝는 후궁 중에서 良家の 자제로서, 이름은 王牆이며 字가 昭君인 궁녀를 單于에게 하사하였다. 單于是 너무 기쁜 나머지 上書하여 변경의 上谷 서쪽에서 屯황 까지 보호하여 무궁토록 보전할 것인즉 변경을 수비하는 군졸 파견을 중단하여 천자의 인민들이 편히 설 수 있게 하기를 청하였다. —— 王昭君은 寧胡關氏라고 호를 하였으며 아들 伊屠智牙師를 낳았는데 후에 右日逐王이 되었다. 呼韓邪는 왕위에 오른 지 이 십 팔년, 즉 진시 2년에 졸하였다. —— 呼韓邪가 죽자 雕陶莫臯가 즉위하여 復株叅若鞮單于가 되었다. —— 復株叅若鞮單于是 다시 王昭君에게 장가들어 두 딸을 낳았는데, 큰 딸은 須卜居次라 하였으며, 작은 딸은 當于居次라 하였다.<sup>8)</sup>

이상의 두 기록은 너무 간략하게 전하고 있어서 昭君의 입궁과 和親에 이르는 전말을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다. 《漢書·元帝紀》는 呼韓邪單于가 漢에 우호적이었으며, 변경을 침범하여 약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年號를 竟寧<sup>9)</sup>으로 개원하고 昭君을 하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元帝는 천하가 태평해지고 변경이 무사히 보전되게 하기 위해 연호마저 “변경을 오래도록 평안”케 한다는 의미에서 “竟寧”으로 개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단행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昭君을 單于에게 하사하면서 “待詔掖庭”<sup>10)</sup>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天子의 命을 기다리는 後宮”이라는 의미로 즉, 昭君이 入宮한 후 아직 皇帝의 寵愛를 받지 못한 채 待期하는 신세로 묘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漢書·匈奴傳》의 기록은 《漢書·元帝紀》에 비해 다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漢書·元帝紀》의 呼韓邪單于是 수동적인 모습인데 반해 《漢

7) 胡韓邪單于와 前妻 大關氏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8) 《漢書·匈奴傳》“竟寧元年，單于復入朝，禮賜如初，加衣服錦帛絮，皆倍於黃龍時。單于自言願漢氏以自親，元帝以後宮良家子王牆字昭君賜單于。單于驩喜，上書願保塞上谷以西至敦煌，傳之無窮，請罷邊備塞吏卒，以休天子人民。----- 王昭君號寧胡關氏，生一男伊屠智牙師，爲右日逐王。呼韓邪立二十八年，建始二年死。----- 呼韓邪死，雕陶莫臯立，爲復株叅若鞮單于。----- 復株叅單于復妻王昭君，生二女，長女云爲須卜居次”

9) 《漢書·匈奴傳》“据如應(應劭)說，竟讀爲境。古之用字，境竟實同。但此詔云「邊垂長無兵革之事」，竟者終極之言，言永安寧也。既無兵革，中外安寧，豈止境上？若依本字而讀，義更弘通也”

10) 漢語大詞典 3:P944, 張統注“待詔，待天子命也” 同書 6:702, 掖庭，宮中部署名，掌後宮 貴人采女事，以宦官爲令丞。應劭注“群國獻女未御見，須命於掖庭，故曰待詔”

書·匈奴傳》에서는 주도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呼韓邪單于가 스스로 漢나라 사람에게 장가들기를 위하여 自請(單于自言願漢氏以自親)”하였기 때문에 後宮인 昭君을 하사하였고, 匈奴와의 대립을 평화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寧胡闕氏”라고 호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匈奴의 풍습에 따라 전처소생의 아들에게 두 번째 시집가서 두 딸을 낳았다는 내용도 새로 추가하고 있다.

西漢 시대 漢과 匈奴간에는 빈번한 전란으로 인한 상호간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대립을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쪽이 완전한 패자가 되어 다른 한 쪽을 제압하는 것이다. 漢 武帝 元狩 4년(BC 119) 大將軍 衛靑과 驃騎將軍 郭去病的 匈奴 원정이 대승을 거두어 匈奴는 8~9만의 인명피해를 초래하였고, 漢나라도 수만의 병졸을 잃었다. 그러나 이후 匈奴는 멀리 漠北<sup>11)</sup>으로 퇴각하여 대략 20여 년 동안 변경지대를 함부로 유린하지 못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匈奴와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맺고 있었던 漢으로서는 국력이 한층 충실해지게 되었고, 이후 대 匈奴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宣帝 甘露 3년(BC 51) 匈奴의 呼韓邪單于가 최초로 입조하여 복속할 것을 청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呼韓邪單于是 사분오열된 匈奴를 수습하기 위해 무모한 전쟁보다는 굴욕적이기는 하지만 漢나라와의 관계개선을 선택한 것이다. 이로서 서역이 완전히 漢나라의 세력판도에 흡수되어 西域都護府가 설치되고, 실�크로드를 안전하게 왕래하면서 交易이 활성화 되었다.

匈奴는 冒頓單于의 시대가 절정이었으며 西漢 말에 이르러 匈奴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北匈奴의 郅支單于가 漢에게 복속하기를 거부하자 漢의 서역도호 甘延壽 장군에게 피살당하였다. 이에 南匈奴 수령인 呼韓邪單于가 元帝 竟寧 元年(BC 33) 정월에 두 번째 입조하여 漢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복속할 것을 청하자 元帝는 그에게 많은 생필품과 의복 및 각종 금은보화 등을 제공하여 그들을 慰撫하였다.

11) 漠北은 지금의 敦煌과 祁連山以西지역의 고비사막과 北山산맥의 이북의 몽고고원을 가리킨다.

이 시기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中國全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匈奴인이 서쪽으로 멀리 옮긴 이후 匈奴 부락 귀족 간에 분열이 생겨 다섯 單于가 병립하는 국면이 출현하였다. 宣帝 甘露 元年(B.C.53)에 呼韓邪單于는 漢에 귀순하였고 무리들은 남쪽의 陰山 부근으로 천도시켰다. 竟寧 元年(B.C.33) 漢 元帝는 궁인 王昭君을 呼韓邪單于에게 시집보내 和親을 회복함으로써 백여 년간 漢과 匈奴 사이의 전쟁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다. 근년 包頭 등지의 漢末 묘장 에서 單于和親 등의 문자가 있는 기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바로 漢·匈奴 관계와 합치되는 실증이다.<sup>12)</sup>

西漢 시기의 외교는 和親史라고 할 정도로 대외민족과의 관계형성에서 和親을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민족에게 강제로 出嫁 당하는 자와 보내는 자의 입장 사이에는 현격한 시각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보내는 자는 구국을 위한 당연한 결과로 수용하길 바라겠지만 당하는 자는 정권을 위해 희생당한다는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상기한 《中國全史》의 내용은 《漢書》와 달리 昭君의 和親을 통하여 漢匈 간에 평화가 마련된 것에 크게 초점을 두고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흉노의 내부가 분열되었음에도 和親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匈奴가 비록 분열되었지만 호전적이며 작전의 행동반경이 신속한 기마부대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내부가 수습된다면 언제라도 中原과 西域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河西回廊을 장악하여 中原을 압박하는 야심을 포기할 수 없다. 때문에 西北 변경을 완전하게 장악할 역량이 부족한 漢 왕실로서는 상호 소모적인 대립을 피하면서 자신들의 정권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西域과의 交易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외교노선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元帝가 연호를 “竟寧”으로 한 것은 바로 변경이 평안해야 한다는 염원에서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漢匈 간에 평화의 상태가 도래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상호 내부의 상황과 이익에

12) 翦伯贊 이진복·김진옥 역 《中國全史》上 p.145

부합하는 원인에서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昭君의 和親이 匈奴에 대한 懷柔정책이 奏效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南北朝 시기 宋代에 기록된 《後漢書·南匈奴傳》은 昭君의 和親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昭君의 자는 嬀이며 南郡人이다. 元帝 초 양가의 자제로 後宮에 선발되었다. 당시 呼韓邪單于가 입조하자 궁인 다섯 명을 하사하기로 명령하였다. 昭君이 입궁한 뒤 여러 해가 지나도록 은총을 입지 못해 슬픔과 원망이 쌓여 掖庭舍에게 떠날 것을 청하였다. 呼韓邪가 떠날 때에 이르러 원제는 다섯 궁인을 그에게 보여 주었다. 昭君은 용모가 뛰어나고 치장을 잘하였기 때문에 漢宮을 밝게 하였고, 그녀가 배회하면서 좌우로 거닐자 元帝가 대경실색하여 그녀를 머물게 하려고 하였지만 신의를 저버릴 수 없어 匈奴에게 하사하였다. 昭君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呼韓邪가 죽자 전처 소생의 아들이 즉위하여 왕비로 삼으려하자 昭君은 귀국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成帝가 胡俗을 따르도록 칙령을 내려 마침내 다시 後單于의 왕비가 되었다.<sup>13)</sup>

이상의 내용은 《漢書》의 기록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표현과 상이점이 첨가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漢書》에서는 元帝가 일방적으로 昭君을 單于에게 下賜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後漢書》에서는 元帝의 총애를 얻지 못해 失意한 昭君 스스로 掖庭舍에게 單于를 따라 갈 것을 자청한 후, 元帝에 의해 單于에게 下賜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元帝는 昭君의 미색을 발견하자 下賜를 철회하고 싶은 욕심이 일어 單于에게 한 약속을 파기하고 싶었지만 信義 때문에 허락할 수밖에 없는 순수하고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 또 呼韓邪單于가 죽자 王昭君은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귀국을 청하였으나 成帝로부터 胡俗을 따라야 한다는 勅令을 받들어 전처 소생의 아들과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匈奴가 서북 변경을 침략하여 中原에 다시 전쟁의 참화가 미칠까 두려웠던 成帝가 귀국을 불허한 것이다. 만일 昭君이 皇室의 公主였다면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일단 귀국을 허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3) 《後漢書·南匈奴傳》“昭君字嬀，南郡人也。初，元帝時，以良家子選入掖庭。時呼韓邪來朝，帝勅以宮女五人賜之。昭君入宮數歲，不得見御，積悲怨，乃請掖庭令求行。呼韓邪臨辭大會，帝召五女以示之。昭君豐容靚飾，光明漢宮，顧景裴回，竦動左右。帝見大驚，意欲留之，而難於失信，遂與匈奴。生二子，及呼韓邪死，其前闕氏子代立，欲妻之，昭君上書求歸，成帝敕令從胡俗，遂復爲後單于闕氏焉”

《後漢書》에 이르러 昭君 下賜說이 請行說로 바뀌게 된 원인은 이미 後漢 말기에 昭君和親 고사가 민간의 각계각층에 유포되어 昭君에 대한 연민과 칭송이 다양하게 회자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태동하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 3. 民間故事類의 昭君和親

南北朝 시대에 劉歆이 지은 筆記小說集 《西京雜記》<sup>14)</sup>중에도 昭君고사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元帝는 後宮이 너무 많아 자주 볼 수 없자 畫工에게 모습을 그리게 하여 그림을 보고 寵愛하였다. 많은 後宮들이 모두 畫工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많게는 십 만금에서 적게는 오 만금에 달하였다. 유독 왕장이 이를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황제의 寵愛를 받지 못하였다. 후에 單于가 입조하여 미인을 얻어 왕비로 삼고자 하여 그림을 보고 昭君이 가게 되었다. 떠날 때가 되어 접견하였는데 모습은 후궁 중에 제일이고, 應對가 뛰어 났으며, 행동은 우아하였다. 황제가 이를 후회하였지만 名簿가 이미 확정되었고, 황제 역시 외국과의 신의를 중시 여겼기 때문에 사람을 다시 교체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을 조사하여 화공들을 처형하고, 그들의 집을 수색하자 재물이 수만금이 되었다.<sup>15)</sup>

이상의 기록은 기존의 史書에 표현된 고사 중심의 서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최초로 畫工에 의한 圖畫설을 제기하였다. 이 고사에서는 민간문학의 사실주의

14) 《西京雜記》는 고대 西漢 사회에 관한 132편의 건문록이다. 이 책은 중국 고대 필기소설 집의 하나로 제왕, 후비, 공후, 장상, 공신, 학자, 문인 등의 일화와 西京(西漢의 수도인 長安)의 문물제도, 풍속, 방술, 역사, 전설 등을 집대성한 책으로 서한 사회의 제반 실상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기록이다.

15) 《西京雜記》卷第二 “元帝后宮既多。不得常見。乃使畫工圖形。案圖召幸之。諸宮人皆賂畫工者十萬。少者亦不減五萬。獨王嬙不肯。遂不得見。匈奴入朝求美人爲闕氏。于是上案圖以昭君行及去召見。貌爲后宮第一。善應對。舉止閑雅。帝悔之。而名籍已定。帝重信于外國。故不更更人。乃窮案其事。畫工皆奔市。籍其家資皆巨萬”

적 수법을 중시하여 昭君의 외모와 성격까지 구체적이고 생동적으로 그렸으며 故事의 인과관계나 모순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昭君이 뇌물 受賂를 거부했기 때문에 부패한 궁중의 실상을 고발하였고, 아울러 昭君이 유혹을 극복하고 부패한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절개를 묘사하였다. 이것은 작자가 正史의 기록보다는 民間에서 회자되는 昭君고사를 묘사한 결과가 아닌 가 생각된다. 이러한 故事의 전개를 통하여 작자는 民間의 애환과 고통을 고발하여 통치자의 무모한 억압과 전횡을 의도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西京雜記》에 이르러 昭君고사의 주제와 인물의 성격이 참신해진 것은 작자가 현실사회의 모순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史書의 보수적인 시각에서 크게 이탈한 《西京雜記》의 등장 이후, 다양한 史書와 詩歌, 소설류의 작품들은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後漢 시기 蔡邕가 창작했다고 전해지는 《琴操》에는 昭君고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王昭君은 齊國 王穰의 딸이다. 소군은 나이 열일곱에 안색이 백옥 같아 나라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王穰은 昭君이 단정하며 우아한 자태를 보고 집안을 엿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졌고, 배필로 삼고자 해도 주지 않았다. 元帝에게 바치려 했지만 길이 멀어 총애를 받지 못하고 후궁으로 5~6년이 지났다. 이에 昭君은 마음에 원한이 생겨 모습을 제대로 꾸미지 않았다. 후에 單于가 사자를 파견하여 천자에게 하례하자 元帝가 춤과 음악을 갖추어 후궁들이 단장을 하고 나오게 하였다. 昭君은 왕을 모시지 못하고 오랫동안 홀로 지냈는데, 마침내 고운 화장과 화려한 의상을 갖추고 함께 열중에 앉았다. 원제는 자주 후궁을 거닐면서도 昭君이 있는 곳은 소홀히 하고 오지 않았다. 후에 單于가 사자를 파견하여 천자에게 하례하자 元帝는 춤과 음악을 갖추고 후궁들을 나오게 하였다. 소군은 황제를 모시지 못하고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마침내 예쁜 고운 화장과 화려한 의상을 입고 열중에 함께 앉았다. 원제가 사자에게 물었다. “單于是 어떤 즐거움을 원하시오!” 대답하기를 “진기한 물건들은 갖추고 있지만 유독 부녀자들이 못 생겨 중국의 여인과 같지 못합니다.” 元帝가 이 말을 듣고 “선우에게 한 여인을 하사하려고 하는데 누가 따라 갈 수 있겠는가!” 이때 소군이 탄식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저는 후궁에서 지냈는데, 추하고 못났기 때문에 폐하의 마음에 들지 못하였으니 제가 가기를 청합니다.” 이때 單于의 사자가 옆

에 있었는데, 원제가 크게 놀라면서 후회하였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한참 후에 탄식하며 말했다. “짐이 일을 그르쳤다.” 마침내 소군을 하사하였다. 소군이 흉노에 도착하자 선우가 크게 기뻐하며 한과 흉노의 관계가 돈후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술과 음악으로 즐기면서 사자를 한 왕에게 파견하여 보고하고, 백옥 한 쌍, 준마 열 필, 胡地의 보화 등을 선물하였다. 소군은 당초 원제를 만나지 못한 것을 원망하자 심사가 편치 않았으며, 마음으로 고향산천을 그리워하였다. 이에 “원광사유가”를 지어 심정을 술회하였다. 소군의 世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선우가 죽자 아들 世遼가 왕위를 승계하였다. 무릇 흉노의 법도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어미에게 장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소군이 세위에게 물었다. “너는 한의 법도를 따르겠느냐! 흉노의 법도를 따르겠느냐!” 세위가 말하였다. “흉노의 법도를 따르고자 합니다.” 이에 소군이 약을 먹고 자살하자 선우가 후하게 장례를 치루었다. 흉노에는 백초가 많았는데 유독 소군의 무덤은 푸르렀다.

추목은 무성하다가 잎이 누렇게 시든다. 새들은 날기를 멈추고 뿔나무로 모여든다

새를 기르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이미 구름을 타고 침실에서 시중을 받는다네.

궁궐을 떠나 멀리 떨어져 몸은 상했지만 뜻과 생각이 깊어서 변하지 않는다네.

비록 배고파 식사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배회하고 있다네.

나는 이곳에서 혼자 살며 일상이 모두 바뀌었다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제비처럼 멀리 西羌에서 살게 되었다.

산은 높고 험하며 강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아버지, 어머니를 목 놓아 부르지만 길이 아득하구나!

오호라! 애제라! 처량하고 슬프기 이를 데 없구나!<sup>16)</sup>

16) 蔡巢《琴操》讀書齋叢書本“王昭君者。齊國王穉女也。昭君年十七時。顏色皎潔。聞於國中。穉見昭君端正閑麗。未嘗窺看門戶。以其有異於人。求之皆不與。獻於孝元帝。以地遠既不幸納。備后宮。積五六年。昭君心有怨賊。僞不飾其形容。元帝每歷后宮。疏略不過其處。后單于遣使者朝賀。元帝陳設倡樂。乃令后宮放出。昭君怨恚日久。不得待列。乃更修飾。善妝盛服。形容光輝而出。俱列坐。元帝謂使者曰：單于何所願樂。對曰：珍奇怪物。皆悉自備。惟婦人丑陋。不如中國。帝乃問后宮。欲一女賜單于。誰能行者起。於是昭君喟然越席而前曰：妾幸得備在后宮。粗丑卑陋。不合陛下之心。誠愿得行。時單于使者在旁。帝大驚悔之。不得復止。良久太息曰：朕已誤矣。遂以與之。昭君至匈奴。單于大悅。以爲漢与我厚。縱酒作樂。遣使者報漢。送白璧一双。駿馬十四。胡地珠寶之類。昭君恨帝始不見遇。心思不樂。心念鄉土。乃作怨賊思惟歌曰云云。昭君有子曰世遼。單于死。子世遼繼立。凡爲胡者。父死妻母。昭君問世遼曰：汝爲漢也。爲胡也。世遼曰：欲爲胡耳。昭君乃吞藥自殺。單于舉葬之。胡中多白草。而此豕獨青”

秋木萋萋。其叶萎黃。有鳥爰止。集于苞桑。養育毛羽。形容生光。既得升云。

이상의 내용과 전개는 《西京雜記》에 비해 다양한 변화와 수식, 그리고 과장이 첨가되어 있어 《西京雜記》에 비해 후대에 창작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琴操》의 내용은 《後漢書》와 《西京雜記》의 표현에 비해 여주인공 昭君의 주도적인 역할과 성격이 크게 강조되었다.

《琴操》는 특히 昭君의 내면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치중하였다: “昭君은 後宮으로 오 육년을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元帝가 거들떠보지 않자 화장도 포기하고 元帝에 대한 증오를 키웠다. 이에 元帝가 昭君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자, 그녀는 더 이상 총애를 기대하지 않고 과감하게 미련을 버린다. 單于가 사자를 보내 賀禮하자 元帝가 後宮들을 보여주려고 주연을 베풀어 昭君이 盛粧을 하고 참석하였다. 그래도 元帝는 昭君을 알아보지 못한 채 홀대하며, 사자의 요구대로 後宮 중에 누가 따라 나서겠는가? 라고 묻자 원한이 가득 찬 昭君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 스스로 單于에게 和親하기를 청하였다.”

이상의 표현과 같이 昭君은 황제의 총애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소극적 여인상에서 마침내 皇帝를 후회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인물로 변모하였다.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盛粧을 하고 연회에 참석한 昭君은 불행히도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린 충격 속에서 請行을 자원하였다. 인용문 중에서 昭君이 “저는 後宮에서 지냈는데, 추하고 못났기 때문에 폐하의 마음에 들지 못하였으니 제가 가기를 청합니다.”라고 대답한다. 이에 비로써 元帝가 자신의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고 후회하면서 “짐이 일을 그르쳤다.”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이전의 인용문 중에서 볼 수 없었던 발전된 기교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民間의 昭君에 대한 貞節과 元帝에 대한 무능함을 동시에 대조하여 선과 악을 드러내려고 시도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呼韓邪單于가 죽은 뒤 전처의 아들에게 재혼해야 하는 치욕을 견딜 수가 없어 악을 먹고 자살했으며, 또 그녀의 무덤이 유독 푸른색을 띤 靑冢<sup>17)</sup>이라고

獲幸帷房。離宮絕曠。身體摧藏。志念抑沉。不得頓頰。雖得委食。心有徊徨。  
我獨伊何。改往變常。翩翩之燕。遠集西羌。高山峨峨。河水泱泱。父兮母兮。  
道里悠長。嗚呼哀哉。憂心惻傷。

17) 소군의 무덤을 靑冢이라고 호칭한 것은 바로 《琴操》 편에서 유래하였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초목의 색깔로 충신 지사 열녀의 지조와 절개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靑冢의 靑이라 함은 昭君이 漢을 잊지 못하는 지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언급하고 있다. 이는 바로 작자가 昭君의 순결한 지조와 민족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한 결과라고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작자는 작품 가운데 昭君이 직접 지었다고 전해지는 《怨曠思惟歌》를 통해 昭君의 원한을 생동감 있게 소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자신을 새에 비유하는 은유의 수법으로 가슴속의 원한을 묘사하고 있다. 시문 중에서 버림 받은 怨婦의 복잡한 인생 역정을 통해 농촌에서 궁궐까지, 궁궐에서 사막에 이르기까지의 고통과 고독을 노래하며 소군 자신의 처절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궁궐을 떠나 멀리 떨어져 몸은 상했지만 뜻과 생각이 깊어서 변하지 않는다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昭君이 자청하여 匈奴에 와 있지만 여전히 元帝에 대한 그리움을 지우지 못하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昭君고사는 후대로 갈수록 창의적이고 생동적인 내용과 수식이 첨가되고 있는데, 이는 昭君이라는 인물이 겸비한 대중성과 참신성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南朝시대의 대표적 志人소설인 《世說新語》중에서는 昭君 和親고사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漢의 元帝 시기에 後宮이 많았기 때문에 화공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여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림을 보고서 불렀다. 궁녀들 중 평범한 사람은 모두 뇌물을 바쳤지만, 昭君은 자태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지조를 지키고 구차함을 버렸다. 화공이 마침내 그녀를 추하게 그렸다. 후에 匈奴가 入朝하여 漢帝에게 미녀를 요구하자 황제가 昭君을 따라 가도록 하였는데 접견하고 보니 너무 아까웠다. 그러나 이미 이름이 정해져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길을 떠나게 되었다.<sup>18)</sup>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西京雜記》의 圖畫 召行說을 모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간결하게 묘사하였기 때문에 《西京雜記》에 비해 구

18) 劉義慶 《世說新語·賢媛篇》漢元帝宮人既多，乃令畫工圖之，欲有呼者輒披圖召之，其中 常者皆行貨賂，王昭君姿容甚麗，志不苟求，工遂毀爲其狀，后匈奴來和，求美人于漢帝，帝 以昭君充行，既召見而惜之，但名字已去，不欲中改，于是遂行。

체적이면서도 생동적인 표현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고사의 前後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상술한 바의 昭君의 請行說과 召行說에 관한 시대의 선후관계가 어느 것이 빠른 것이라고 단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후대에 전한 바로는 召行說이 請行說에 비해 더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로써 昭君의 請行說을 묘사한 《後漢書》와 《琴操》의 설은 점차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宋代 郭茂倩이 편찬한 《樂府詩集·琴曲歌辭·昭君怨》 중에도 昭君에 관한 기록이 전하고 있다.

昭君은 齊國의 王穰의 딸로 나이는 열일곱인데 자태는 절세미인이고, 총명함과 지혜는 사람들을 능가했다. —— 궁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황제가 이를 구별할 수 없게 되자 畫工 毛延壽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그림을 보고 총애를 하였다. —— 畫工이 그녀의 얼굴을 추하게 그렸기 때문에 총애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竟寧 元年 春正月, 匈奴의 呼韓邪가 來朝하여 미인을 얻어 왕비로 삼고자 하여 황제가 궁녀에게 출가하도록 俞을 내렸다. 昭君이 입궁한 이래 계속 황제를 뵈 수 없게 되자 처량하고 원망이 생겨 마침내 떠나기를 희망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황제께 인사하고 궁궐을 나서려는 때에 昭君의 빛이 한의 궁궐을 빛나게 하였으며, 자태는 아름답고 단장을 잘하고 이리저리 배회하며 거닐어 좌우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황제가 깜짝 놀라 그녀를 머물게 하고 싶었지만 이역과의 신의를 중시해야 했기 때문에 昭君은 胡服을 하고 말을 탄 채 비파를 안고 변경으로 떠났다.<sup>19)</sup>

이상의 표현을 통하여 《樂府詩集》의 작자는 이전의 圖畫召行說과 請行說을 모두 수용하여 한 편의 고사로 재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체의 스타일도 《後漢書》와 유사한 곳이 많아 《西京雜記》와 《後漢書》의 내용을 적절히 결합하여 환골탈태시킨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참신하고 개성 있는 창작 기교와 표현은 아주 독창적인 것인데, 이는 昭君고사가 민간에서 여러 형태로 流傳되자 작자가 의도적으로 통일된 昭君고사를 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결과라고 사료

19) 《樂府詩集》五十九條

된다.

#### 4. 맺는말

이상의 여러 가지 正史類의 기록 및 民間故事類의 昭君 묘사를 종합해 보면 昭君의 出嫁 和親에는 대략 네 가지 상이한 견해가 상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昭君 자신의 적극적인 出嫁 請行에 의한 下賜설은 《後漢書》와 《琴操》에서 제기하고 있다. 昭君은 품성이 고결하고 지조가 높아 畫工 毛延壽를 뇌물로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추하게 그려져 皇帝의 寵愛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오랫동안 後宮의 신분에 머물러 있던 昭君은 서운함이 고조되어 스스로 흉노로 가기를 청하여 결국 元帝의 동의를 얻고 出嫁 和親하게 되었다는 설이다.

둘째, 昭君의 出嫁 和親은 毛延壽의 계획적인 毀畫 행위에 의해 圖畫召行이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昭君이 자칭했다는 請行설은 《樂府詩集》에서 제기하고 있다. 毛延壽는 女色에 심취해 있는 元帝가 昭君의 출중한 才色으로 인해 더욱 실정할 것이 염려되어 昭君의 초상을 고의로 추하게 그렸다. 후에 呼韓邪가 입조한 뒤 漢의 여인을 처로 삼기를 청하자 元帝가 추한 여인을 보낼 계획을 하고, 昭君을 下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연회장에서 昭君을 직접 맞닥뜨리자 그림과 전혀 다른 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회와 아쉬움이 컸지만 부득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기존 正史의 입장과 달리 毛延壽를 애국자로 부각시키고, 元帝를 호색한 군주로 격하하였다.

셋째, 元帝의 직접 下賜설은 《漢書》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正史의 기록에 근거하면 昭君의 出嫁 和親은 漢匈 변경의 안정과 평화에 큰 역할을 기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呼韓邪單于 부자의 匈奴 執政시기의 漢匈 간의 원만한 관계가 상호 정략적인 혼인으로 유지되었음을 뒷받침하고 강조한 결과이다.

넷째, 毛延壽의 圖畫에 의한 召行설은 《西京雜記》와 《世說新語》에서 제기

되었다. 이 견해는 《後漢書》와 《琴操》의 請行 下賜설과는 다소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두 가지 견해가 모두 圖畫에 근거한 것이지만 차이점은 昭君 자신의 적극적인 요청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圖畫의 내용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昭君고사는 《漢書》의 간단한 史實의 기록에서 비롯하여 후대로 갈수록 점차 예술성을 구비한 고사로 변화 발전하였다. 하나의 史實이 民間故事로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줄거리는 확대되었고, 형상미도 풍부하게 구비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昭君故事가 시공과 형식을 초월하여 다양한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는 것은 昭君이라는 인물이 지닌 대중성과 참신성을 두루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正史의 기록에 근거하면 昭君은 첫째 남편인 呼韓邪單于가 죽고 난 후, 呼韓邪單于의 전처 아들 雕陶莫婁과 다시 혼인하여 두 딸을 낳았다. 이러한 풍습은 漢의 문화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굴욕적인 사건이지만 雕陶莫婁는 昭君을 자상하게 배려하고 극진히 예우를 베풀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昭君은 적극적으로 匈奴의 법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여 漢匈 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하여 안정국면을 조성하는데 협조하였다. 雕陶莫婁의 死後, 昭君은 두 딸과 함께 匈奴의 내정에 도 관여하였고, 또한 그의 두 딸은 長安에 입궁하여 元帝의 皇后였던 太皇太后를 시종하였으며, 두 오빠는 漢 조정의 대 匈奴 관계와 和親에 관련된 和親侯로 종사하였다. 이렇게 가족이 모두 漢匈 간의 관계 개선에 조정자로 나선 것을 보면 당시 漢匈 통치계층 모두가 절실하게 이들의 막후 역할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러한 임무수행으로 昭君의 가족은 일정한 지위와 부를 누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昭君의 出嫁 和親이 지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하여 일부분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그 본래의 의미를 폄하할 소지가 크다. 史書의 昭君故事 기록이 진실인지 아닌지 고증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昭君의 출가의 의미를 단순히 史書의 범위로 제한하여 평가한다면 이는 昭君의 의지와는 무관한 통치자의 기호에 맞는 의미로 각색될 수 있다. 《漢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昭君의 出嫁

和親 이후 漢匈 간에 평화와 안정 국면이 조성됐다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만일 匈奴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 사분오열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흉노의 單于가 昭君 一人의 和親에 만족하고 평화 유지에 협조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당시 내부의 분열과 동요로 세력이 약화된 匈奴의 입장에서는 昭君의 和親과 漢의 풍부한 원조를 수용하고, 漢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昭君과 민간의 입장에서 出嫁 和親은 나약한 개인이 정략적인 희생양으로 이루어진 비극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큰 관심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하였다. 昭君 이전에 匈奴와 和親하기 위해 出嫁한 자들은 모두 한 皇室여자들인데, 최초로 민간 출신의 後宮이 和親에 이용되었다. 당시 원래 對 匈奴 和親의 규정에 따르면 和親女의 선발은 皇室의 公主나 宗室의 여인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元帝가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民間人 출신인 昭君을 和親의 대상으로 묵인한 것은 皇室여인을 보호하려고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는 西漢 왕조가 匈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匈奴 내부의 내분으로 분열이 생기자 元帝가 皇室의 公主 대신 後宮을 출가시키려고 의도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역사배경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昭君의 出嫁 和親의 원인은 《西京雜記》와 《世說新語》에서 제기하는 圖畫召行說이 비교적 합리적인 설명에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

《西京雜記》나 《世說新語》, 그리고 《琴操》에서 등장한 圖畫 召行이나 請行 설은 작자들이 正史의 下賜說의 수동형 인물에서 과감히 벗어나 民間과 昭君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확대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昭君의 고결하고 가련한 여인의 전형은 바로 民間의 자신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昭君을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변화시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고자 의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參考文獻〉

- 林幹 編 《匈奴歷史年表》中華書局, 1984  
葛洪 《西京雜記》貴州人民出版社

- 劉義慶 《世說新語》 福建教育出版社, 1985  
 郭茂倩 《樂府詩集》 世界書局  
 蔡巢 《琴操》 讀書齋叢書本  
 班固 《漢書》 上海古籍出版社  
 范曄 《後漢書》 上海古籍出版社  
 曹禺 〈昭君自有千秋在〉 民族團結, 1972-2  
 翦伯贊 〈王昭君家世年譜及有關書信〉 北京大學報, 1982-6  
 張壽林 〈王昭君故事演變的點點滴滴〉 《敦煌梁變文錄》 1985  
 梁容若 〈關於王昭君之歷史與文學〉 大陸雜誌, 1-9  
 黃榮琇 〈王昭君故事的演變〉 《主題學 研究論文集》 1983  
 張傳璽 〈關於王昭君的幾個問題〉 北京大學報, 6  
 狄辛 〈昭君形象的藝術再現〉 民族團結, 1972-2  
 郭漢城 〈一曲民族團結的頌歌〉 民族團結, 1979-4  
 梁振昆 〈歷史真實和藝術真實的高度統一〉 思想戰線, 1976-6  
 周凝華 〈王昭君古里考〉 江漢論壇 1980-3  
 鄭大可 〈王昭君—從曠世美人到千古怨婦〉 南方都市報 2004, 12/28  
 趙學儒 〈平民女“和親”王昭君〉 正說歷代非常全集 武漢大學出版社 2006  
 內蒙古新聞網 〈王昭君與毛延壽〉 2003, 11/6

### 〈中文提要〉

昭君出塞和親的故事让王昭君在历史上拥有一席之地。这个故事在《汉书·匈奴传》和《后汉书·南匈奴传》等正史中都有所记载。但有关和亲的原因，至今众说纷纭，莫衷一是。

关于和亲的原因，《汉书·匈奴传》和《后汉书·南匈奴传》的记载和民间故事类的记载对照的结果，能够分成几个原因。

其一，最流行的说法是请行下赐说。王昭君因自傲，未买通画工毛延寿，因而被丑化。美貌的昭君因此得不到皇上的宠爱。于是自己请行匈奴。终于经元帝的同意，便出塞去和亲了。

《后汉书》和《琴操》的记载都支持这个观点。

其二，王昭君所以出塞，是毛延寿设下的救国计策。他见昭君的美貌非凡，怕元帝贪恋其美色而不能自拔误国，于是将昭君有意丑化。后来，元帝原想以丑送人，结果将昭君送匈奴，但元帝见昭君真面目时，并非如此，曾想反悔，但君无戏言，无奈只好忍痛割爱。《乐府诗集》坚持这个立场。

其三，据政史中记载，昭君出塞和亲，对汉边疆的安宁起了良好的作用。在“神册”单于父子执政时期，汉匈关系和睦，这说明政治联姻对于汉匈外交上有积极意义的。《汉书》很强调

元帝的下賜說。

其四，昭君進宮後，不肯賄賂毛延壽，毛便在她的画像上點些破綻。公元前33年，呼韓邪單于主動來漢朝，對漢稱臣，並請求和親，以結永久之好。元帝按画像以昭君充行。《西京雜記》和《世說新語》的記載都取材這個見解。

據歷史記載，被出塞和親的對象，一般都是皇室的公主。當時匈奴的內部出現混亂的局面，他們的動員力量不如以前那麼倔強。所以元帝有點故意地將一個民間出身的昭君便出塞去和親了。並且她出塞之後，借昭君天賦的犧牲精神和熱情，她與她的子女後孫對漢匈兩族人民和睦親善作出很大的貢獻。

主題語：王昭君，元帝，毛延壽，匈奴，出嫁和親，下賜，图画召行，請行下賜，

